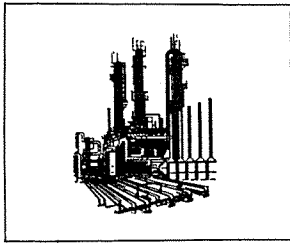


石油時評

石油價格의 經濟的 限界



지난 1년동안 에너지情勢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國際石油價格은天井에 육박하고 있어 새로운 경쟁적인市場이 형성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20여년간에 걸쳐 國際石油價格은 규제없는 경쟁적인市場에서의 메이저(國際石油資本)의 움직임에 따라 대개 결정되었다. 배럴당 2~3달러(81년의 物價換

算으로는 6~8달러)였던 평균가격은 메이저의 利益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계산된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가격으로도 石油탐사나 생산투자를 하고도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기 때문에 메이저의 市場擴大意慾을 자극시킬수가 있었다.

50년부터 70년에 이르는 기간중에 세계의 에너지소비량은 3배로 증가한데 비해 石油소비량은 4배로 늘어났다. 이 기간중 세계에너지供給에서 차지하는 石炭의 비율은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 들었다. 石油는 값이 저렴한데다 수송, 저장, 사용이 간편해서 연료로서의 매력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石油에 代替할 새로운 에너지源을 개발, 판매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나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

그 동안 美国 정부나 산업계가 意思를 결정할 때, 석유가격이 競争市場에서 결정되는 상태가 계속되도록 하는 문제가 당연한 前提가 되었다. 그 결과 전세계에서 방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美国의 경우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국가 전체가 自動車輸送에 현재와 같이 의존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될 것

‘소비절약, 精製術의 高度化, 석탄이나 天然가스에의 轉換 등으로 世界石油需要는 劇적으로 減少할 가능성이 있다.’

이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先進工業國의 경제는 石油燃料에의 압도적인 의존 위에서 구축되거나 재편성되었다.

70년 이후 產油國정부는 메이저에 대해 그때까지와는 판이한 價格政策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一連의 충격적인 石油價格引上으로 OPEC(石油輸出國機構)은 70년에 배럴당 6달러(80년 物價로 환산)였던 석유가격을 현재는 35달러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이와 같은 石油價格의 폭등은 에너지市場에 침투하려는 石油會社의 가격전략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資源을 보존하면서 충분한 石油收入을 올리려는 產油國의 가격전략이 석유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물론 產油國의 석유가격전략은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가 減産을 통해 石油收入의 감소를 甘受한다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지탱되는 면이 크다.

최초의 石油價格인상은 전세계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요구조는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석유의 소비절약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보다 중요하게 영속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傾向은 현행 石油價

격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그 이상의 상승을 막는 수준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石油需要의 세계적인 감소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石油는 産業用이나 난방용의 熱源과같은 값싼 사용분야에서는 현재의 가격은 다른 에너지源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內燃機用 燃料로서는 石油製品에 代替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에너지는 거의 없으며, 알콜과 같은 代替에너지는 석유와 마찬가지로 값이 비싸다. 그러나 석유를 熱源 및 電源으로 사용할 경우 石油에 代替할 수 있는 에너지源은 많다.

이러한 代替에너지는 현재 石油價格下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현재 대개 세계 石油소비의 50% 이상은 보일러用과 같은 난방用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보통 精製工程에서 나오는 殘留物(重油)이다.

현재 석유제품수요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면, 美國에서는 81년 5월 정유공장의 稼働率은 70% 이하에

『産油国은 석유수요가 硬直的이라는 생각에서 제멋대로 石油價格을 올릴 수는 없다. 石油의 실질가격이 安定될 날은 머지 않다.』

머들고 있다. 효율이 낮은 정유공장은 이미 操業을 중지하고 있으며, 영구히 폐쇄한 곳도 있다. 低效率의 정제설비가 급속히 조업을 중지함에 따라 短期的으로는 세계 정유설비의質은 평균적으로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현재의 原油油種間 價格差나 重油와 輕質油分과의 가격차를 볼때 정유업자로서는 같은 量의 原油에서 보다 이용가치가 높은 제품을 보다 많이 얻을 수 있는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쪽이 유리한 정세가 되었다. 이에 따라 低品質原油의 보다 많은 부분을 정제처리할 수 있도록 정제설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巨額의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진행될수록 보다 少量의 원유로 세계의 內燃機用의 고급연료수요를 메꿀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또한 지금까지 보일러用이나 기타 값싼 용도에 쓰이게 될 부분의 본래의 가치를 높여 주는 결과도 될 것이다.

보일러燃料나 熱源에는 石油 이외의 에너지자원을 사용하고, 石油로부터는 보다 高品質의 제품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는데에는 이유가 있다. 産

業用등의 熱源으로서 손색없이 石油에 代替할 수 있는 것은 石炭과 天然가스이다. 이미 세계의 대량의 天然가스자원이 지닌 가치는 인식되기 시작했다. 中東과 기타지역에서 石油생산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가스를 집적하여 수송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다. 美國에서는 天然가스探査는 기록적일 정도로 활발하다. 정부는 天然가스를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해온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소련, 캐나다, 멕시코, 中東, 太平洋등에 未開發의 天然가스資源이 부존되어 있다. 수송수단의 정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자극이 가해질 경우, 天然가스는 대량으로 石油에 代替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石炭去來가 증대될 경우, 石炭도 역시 보일러用이나 난방用燃料로서 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중계국을 종합해 보면, 石炭의 해상수송거래는 石油환산으로 현재의 하루 2백만배럴에서 2000년에는 同8백만배럴로 4배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진국에서는 석유소비를 억제할 수 없는 경제사정이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경제적, 전략적으로 石油로부터 石炭에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할때, 石油로부터 石炭에의 전환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西方諸國뿐만 아니라 공산권에서도 같은 요인이 작용할것 같다. 소련의 油田의 생산량추이를 토대로 한 일반적인 예측에 의하면, 共產圈은 머지 않은 장래에 세계석유시장에 등장하여 石油需給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東歐圈諸國에서도 석유소비의 대부분은 發電用인 보일러用이나 산업용 熱源인 것도 사실이다. 東歐圈은 방대한 石炭資源과 미개발의 다량의 天然가스資源을 갖고 있다. 만약 앞으로 輸送시스템 정비가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분야에서는 石炭이나 天然가스가 간단히 石油에 代替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세가지 要因, 즉 ① 石油의 직접소비의 절감, ② 同一한 원유로부터 보다 값비싼 제품을 얻기 위한 石油精製技術의 고도화, ③ 값싼 사용분야에서의 石油로부터 石炭, 天然가스등에의 연료전환으로 세계의 석유수요는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 이상으로, 보다 劇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OPEC의 현재의 價格政策이 이러한 경향에 拍車를 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産油国은 石油需要는 硬直的이라는 생각에서 제멋대로 석유가격을 올릴 수는 없으며, 石油의 實質價格이 安定될 날은 머지 않은 것 같다. (다니엘·A·드레푸스博士, 美上院에너지위원회고문) *